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동관 화원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각종 소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은 12월 7일 화원에서 꽃을 보고 있는 직원의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_____ 소속: _____
전화번호: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신선한 일품요리를 제공하는
일식당 '나미'**

따뜻한 국물과 신선한 초밥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식당 나미로 초대합니다.

활가리비탕



21,000원

연어장



8,000원

위치 : 동관 지하 1층

영업 시간 : 오전 11시 ~ 오후 8시 30분
* 일요일 휴무

주요 메뉴 : 알탕(13,000원), 대구탕/지리(16,000원),
생대구탕/지리(21,000원),
참치회덮밥(16,000원), 특모듬초밥(31,000원)

반찬 판매 : 민물장어구이(20,000원), 활전복장(9,000원),
새우장(9,000원), 연어장(8,000원),
공치구이(6,500원), 계란말이(4,000원),
양념다데기(10,000원), 초고추장(5,000원)
* 1일 전 예약판매로 운영됩니다.

신메뉴 : 활가리비탕(21,000원)

문의 : 02-3010-6181

* 외래식당가 포장 판매, 직원 10% 할인
(사원증 또는 사번 제시 후 이용 가능,
별도 공지 시까지 한시적 적용)

독자를 위한 선물



당첨자 명단

- | | |
|---|----------------------------------|
| 스카이라운지 에메랄드
코스 식사권(160,000원)
임현아(운영지원팀) | 미니 마사지기
김서현(외과)
양슬기(영상의학팀) |
| 스카이라운지이용권(70,000원)
손효주(내과) | 달마이어 이용권
김연지(진단검사의학팀) |
| 원내 식당 이용권(30,000원)
김래희(암병원간호2팀) | 유은정(수술간호팀) |
| 박명지(어린이병원간호팀) | 이신혜(응급간호팀) |
| 이현진(중환자간호팀) | 지선희(임상시험센터) |
| 정민지(영상의학팀) | 최수현(어린이병원간호팀) |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2년 1월 1일(토)
발표 제669호(2022년 1월 15일 발간)



뉴스매거진 매월 1일 · 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667 2021. 12. 15



함께 이겨낸 2021년, 환자와 웃다

“긴 치료 여정을 잘 이겨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환자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위호준

(남, 55세) 씨와 보호자, 의료진이 신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며 서로 덕담을 나누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병원도 코로나19로 인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격리가 있었고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우리는 환자들의 건강과 병원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직원들 덕분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호흡기내과 김호철 조교수, 위호준 씨와 배우자, 내과간호1팀 최도희 주임, 내과 설현호 레지던트, 내과간호1팀 오유미 대리.

02 NEWS 의료 인공지능 개발 콘테스트

08 AMC IN(人)sight 노년 건강의 매듭을 풀며

12 송년특집 2021 나의 연말정산

16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병원에서의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의료 인공지능 개발 콘테스트



11월 30일 열린 2021 의료 인공지능 개발 콘테스트 성과발표회에서 한국 과학기술원 팀 참가자가 알고리즘 개발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뇌졸중센터가 ‘2021 의료 인공지능 개발 콘테스트(HeLP Challenge)’를 개최했다.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콘테스트에는 의료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는 개인, 대학, 연구기관 등 7팀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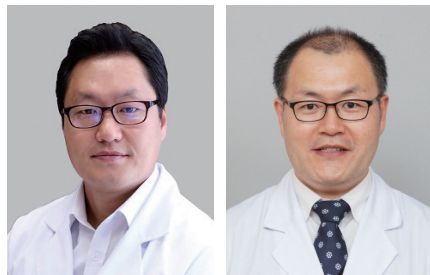
신경과 김범준 부교수, 영상의학과 정승채 부교수, 융합의학과 성유섭 조교수 등 우리 병원 의료진과 산업계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각 팀이 개발한 의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확도와 속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 과학기술원 팀이 ‘급성 뇌혈관질환 확산강조영상 분류’ 과제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응용연구실·포항공대 IT융합과 의료영상처리 팀이 ‘뇌졸중 발생시점 예측’ 과제에서 우승해 각각 2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각 팀은 의료데이터가 클라우드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에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인 ‘헬스케어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HeLP)’을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우리 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후 비식별화 절차를 거친 우리 병원의 급성 뇌혈관질환 환자 의료데이터에 접근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김범준 부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한국 연구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인 ‘한국형 급성 뇌혈관질환 연구 빅데이터 표준화 및 개방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 환경 구축’에 반영 예정이다. 세계적인 의료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줄기세포 치료 성공률 높일 현미경 기술 개발



김준기 조교수 백찬기 교수

융합의학과 김준기 조교수, 융합연구지원센터 백찬기 교수팀은 유래가 다른 줄기세포들의 소기관 특성을 3차원으로 실시간 분석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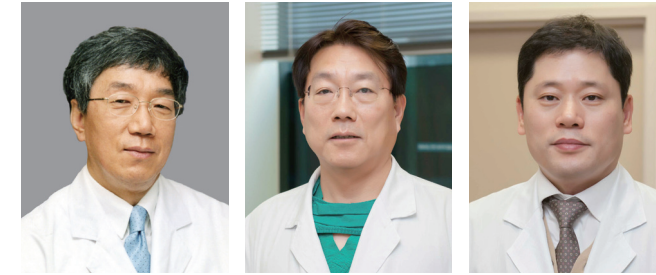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팀이 이용한 광학 회절 단층촬영(ODT, Optical Diffraction Tomography)이라는 현미경 기술은 투명한 세포에 빛을 조사하여 얻은 산란된 빛과 표준 광원을 이용해 홀로그래프(3차원 영상이 가능한 입체 사진) 방식으로 영상을 재현해내는 기법이다.

ODT 기법은 세포와 세포 내 소기관의 굴절률(분자밀도)과 부피를 정량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기존의 형광 현미경이나 전자 현미경으로 세포 특성을 관찰할 때와 달리 세포에 형광 염색이나 다른 침습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도 일반 세포와 줄기세포를 구별할 수 있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조직 공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분자세포생물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한국 분자세포생물학회지」에 최근 게재됐고 줄기세포의 특징적 소기관을 3차원으로 영상화한 이미지가 표지로 선정됐다.

김준기 조교수는 “이 기술은 임상현장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세포 샘플에 적용해 질환에 대한 진단에도 활용될 수 있다. 내년부터 융합연구지원센터에서 분석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한국 의료 혁신가들에 선정



이승규 석좌교수 박승정 석좌교수 권순억 교수

KBS ‘생로병사의 비밀’은 방송 20주년을 맞아 한국 의료 혁신가를 선정했다. 우리 병원에서는 간이식·간담도외과 이승규 석좌교수,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 신경과 권순억 교수

가 선정됐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방역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 치료 ▲2위인 심뇌혈관질환 치료 분야의 혁신을 이끈 의료 혁신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책 「포스트 코로나, 한국 의료의 혁신가들」을 최근 출간했다. 책에서 이승규 석좌교수는 황무지에서 간이식 치료의 혁신을 일궈낸 주인공으로, 박승정 석좌교수는 세계 심혈관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을 선진적으로 바꾼 주인공으로, 권순억 교수는 한국의 뇌졸중 치료를 OECD 최고 수준으로 높인 주인공으로 소개됐다. 이 내용은 20주년 특별기획 방송으로 2022년 1월 5일, 12일 2부작에 걸쳐 방영될 예정이다.

2021 이노베이션 챌린지



박승일 병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이노베이션 챌린지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한 해 동안 진행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2021 이노베이션 챌린지’ 전시가 12월 1일부터 이틀간 동관 대강당 앞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는 인간 중심의 병원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AMC 스마트출입시스템 ▲서울아산병원앱 디자인 ▲연구중심병원 스마트 수술실 등의 프로젝트가 소개됐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팩토리에서 제작한 제품들이 전시됐다.

감염관리 링크인 결과보고회



감염관리 링크인 결과보고회에서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감염관리 링크인 결과보고회가 12월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올해는 총 138개 유닛에서 194명의 직원이 감염관리 링크인으로 활동했다. 감염관리실은 부서별 감염관리 담당자(링크인, Link-In)를 선발하여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년간 우수활동을 한 직원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내과간호1팀 김성미 대리, 우수상은 외과간호1팀 윤수인 과장 등 3명, 장려상은 내과간호2팀 황진영 대리 등 3명, 열정상은 심장검사팀 이지선 대리 등 5명이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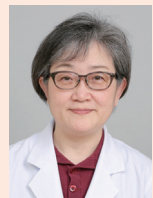
동정

김동관 교수 대한폐암학회 회장 취임



흉부외과 김동관 교수가 대한폐암학회 제16대 회장에 선출됐다. 대한폐암학회는 폐암의 예방·진단·치료에 대한 지침 수립과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폐암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김애란 교수 학술상



신생아과 김애란 교수가 10월 22일 열린 대한신생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해외논문부문 학술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극소저체중 신생아의 분만 24시간 후 중증도 예측'이라는 주제의 연구 성과로 이 상을 받았다.

정형외과 의료진 학회서 수상



이동호 교수 김민희 임상강사 백승현 임상강사 이준희 임상강사 정형외과 의료진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제49회 북미경추연구학회에서 최우수구연상과 최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정형외과 이동호 교수와 김민희·백승현·이준희 임상강사는 '경추 후방 신경경 감압술 후 발생하는 경추 후만의 예측 인자'라는 주제로 최우수구연상을,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의 후궁 성형술에서 수술 범위 결정을 위한 modified kappa-

line의 유용성'이라는 주제로 최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최종우 교수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이사장 취임



성형외과 최종우 교수가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11월부터 2년간이다.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는 안면외상과 중앙재건, 고난도 안면미용성형 등에 대한 진료·교육·연구를 위한 학술단체로 현재 1,1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석영 부교수 최우수구연상



융합연구지원센터 김석영 부교수가 11월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AACR-KCA 공동 컨퍼런스에서 ⁸⁹Zr-DFO와 hSSTR2 리포터 유전자/⁶⁸Ga-DOTATOC으로 동시적 직·간접 세포 표지법을 이용하는 CAR-T 세포의 추적과 모니터링: 동물 모델 PET/MR 영상 선행연구'라는 주제로 최우수구연상을 받았다.

김규원·전동섭 임상강사 KGFID 학술상



소화기내과 김규원·전동섭 임상강사가 11월 18일부터 사흘간 열린 2021년 제5차 소화기연관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김 임상강사는 'Cine MR을 이용한 소장 운동기능 평가의 임상적 효용: 거대결장 환자에 대한 동적 평가'라는 주제로, 전 임상강사는 '취장십이지장 절제술 후 비알콜성 지방간 발생에 위 유문 보존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각각 KGFID 학술상을 받았다.

임성준 임상강사 최우수연구자상



신·취장이식외과 임성준 임상강사가 10월 4일부터 사흘간 열린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ACKSS 2021)에서 '신장이식 수술 후 항체매개성거부반응을 찾기 위한 바이오마커로서의 엑소좀(시스타틴C, 지질다당류결합단백질) 활용'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연구자상을 받았다.

정진하 임상강사 우수구연상



산부인과 정진하 임상강사가 11월 20일 열린 제34차 대한주산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태아단락술 시행 후 섀트류브 탈락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조서연·방수연·우연주·김지현 대리 서울간호학술대회서 수상



어린이병원간호팀 조서연 대리, 응급간호팀 방수연 대리·우연주 대리, 내과간호1팀 김지현 대리가 11월 23일 열린 제14회 서울간호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조 대리는 '소아중환자실에서 심장수술 환자에게 적용한 적극적 감시배양과 선제격리, 클로르헥시딘 침상목욕이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방 대리는 '심정지 후 저체온요법 적용 환자의 말초 청색

증 발생 현황'을 주제로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 대리는 '코로나19 환자 간호 경험: 코로나가 가져온 특별한 간호'를 주제로, 김 대리는 '임상간호사의 신종 감염병(코로나19) 환자 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제로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신동원 임상강사 우수신진회원상



신경외과 신동원 임상강사가 11월 27일 열린 대한두개저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원상 우수신진회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만 40세 이하의 젊은 대한두개저외과 의사의 수술 술기 함양과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인사

보직임명

서울아산병원	실장	김준형	임: 운영지원실장
암병원간호2팀	부장	이선희	임: P팀장
외과간호1팀	차장	김지윤	임: 암병원간호2팀장
건진운영팀	부장	시강석	임: 총무팀장
관리부	부장	문홍진	임: 건진운영팀장
수술간호팀	차장	김경자	임: 수술간호팀장
인사팀	부장	최화식	임: 원무팀장
기획팀	부장	정창희	임: 인사팀장
경영분석팀	부장	이계훈	임: 기획팀장
교육수련팀	부장	이윤재	임: 경영분석팀장
인사팀	차장	김상규	임: 교육수련팀장
기획팀	부장	신승환	임: 연구지원팀장
해외사업팀	부장	신재호	임: 윤리경영팀장
국제교류팀	차장	성숙경	임: 해외사업팀장
인사팀	차장	박세종	임: 국제교류팀장
총무팀	부장	김광연	임: 자재팀장
			임: 사회복지팀장

- 이상 16명, 2022. 1. 1부.

단신

카이스트와 심포지엄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의생명연구소 중개과학기술연구단과 카이스트(KAIST)의 공동 심포지엄이 12월 10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생체영상화를 위한 새로운 조직공학 기술 개발 ▲항종양 면역세포-유전체 분석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 기법 ▲망막 혈관 생물학 및 병리 기전 ▲성체줄기세포를 통한 재생 연구 등 다양한 최신 의과학 연구에 대한 발표 및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염증성 장질환 공개강좌

염증성 장질환 센터가 12월 11일 '염증성 장질환과 함께 하는 삶' 공개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정보와 일상생활 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인스턴트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되는 레시피에 대한 소개,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이 달의 신규 후원자

(재)구원장학재단	140,000,000원	문상권	1,000,000원
(재)대신송촌문화재단	200,000,000원	박복순	300,000원
국제공영(주)	10,000,000원	박상매	3,000,000원
덕산출판(주)	100,000,000원	변유정	200,000,000원
서울아산병원 제2어린이집	730,000원	변이창	100,000,000원
에이치실퍼(주)	30,000,000원	선현우	500,000원
일상임상심리연구소	500,000원	송현정	1만 원 미만
(주)다와이특강	50,000,000원	안형록	3만 원 미만
(주)행복한씨엠오	10,000,000원	이경남	3,000,000원
JOHN CHA	10,000,000원	이근의	1만 원 미만
강소라	1만 원 미만	이수정	50,000,000원
김선미	10,000,000원	정현숙	4,000,000원
김정연	1,000,000원	최미나	50,000원
나재성	1,000,000원	최선옥	1만 원 미만
도준형	5,000,000원	한상철	30,000,000원

- 2021년 11월 30일 기준, 단체·개인별 가나다 순

2021년 누계액(11월까지) : 17,293,695,921원

모아사랑 후원 현황

'모아사랑'은 직원들이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매달 자신의 급여 끝전을 후원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1년 11월 30일 재직자 기준 우리 병원 직원 2,557명이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227,639,216원이 모아졌으며 이중 636,197,182원이 사용됐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유닛 (원내 6207)

PI 활동 결과 보고회



온라인으로 진행된 PI 활동 결과 보고회에 참여한 직원들의 모습.

직원 26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PI 활동 우수 주제 구연 발표 ▲2021·2022년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목표 소개 등이 진행됐다.

PI 활동 우수주제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2021년 PI 활동 중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한 결과 ▲대상은 약제팀 외 연합팀이 진행한 '간이식·간담도외과 입원처방 의약품 반납률 감소 활동' ▲금상은 내과간호2팀·신장내과 연합팀이 진행한 '혈액투석 중 혈당 저하 대처방안 개선'과 심장내과 외 연합팀이 진행한 '와파린을 복용하는 외래 환자의 정확하고 안전한 처방을 위한 개선 활동'에 돌아갔다. 그밖에 은상 2팀, 특별상 2팀, 동상 5팀, 장려상 6팀이 수상했다.

한 해 동안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PI 활동 결과 보고회'가 12월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직원 홈트' 프로그램 500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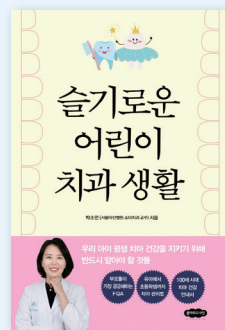
서울아산병원 직원 홈트에 참여한 직원이 12월 2일 마지막 6단계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운동량이 부족해진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사협력팀이 진행한 '서울아산병원 직원 홈트' 프로그램이 5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매주 단계별 운동 미션을 공개하고 성공시 다음 미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이번 프로그램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홍보 영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총 6단계 미션을 모두 성공한 직원은 36명이었으며 체중감량 비중에 따라 애플워치, 원내식당 이용권 등 상품을 받았다.

신간안내

슬기로운 어린이 치과생활



지은이 : 박소연
 페이지 : 272쪽
 가격 : 17,000원
 펴낸곳 : 클라우드나인
 발행일 : 2021년 10월 29일

치과(소아치과) 박소연 조교수가 유아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구강 교과서 「슬기로운 어린이 치과생활」을 최근 펴냈다. 치과 교수이자 자녀를 둔 엄마인 박소연 조교수는 진료실을 찾은 부모, 주변 지인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한 권에 엮었다. 책은 ▲이가 났어요 ▲충치가 생겼어요 ▲이가 다쳤어요 ▲전신질환이 있어요 등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돼 소아치과의 모든 영역이 담겨있다. 책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기부될 예정이다.

메타버스 시대의 도서관



주명수 아산의학도서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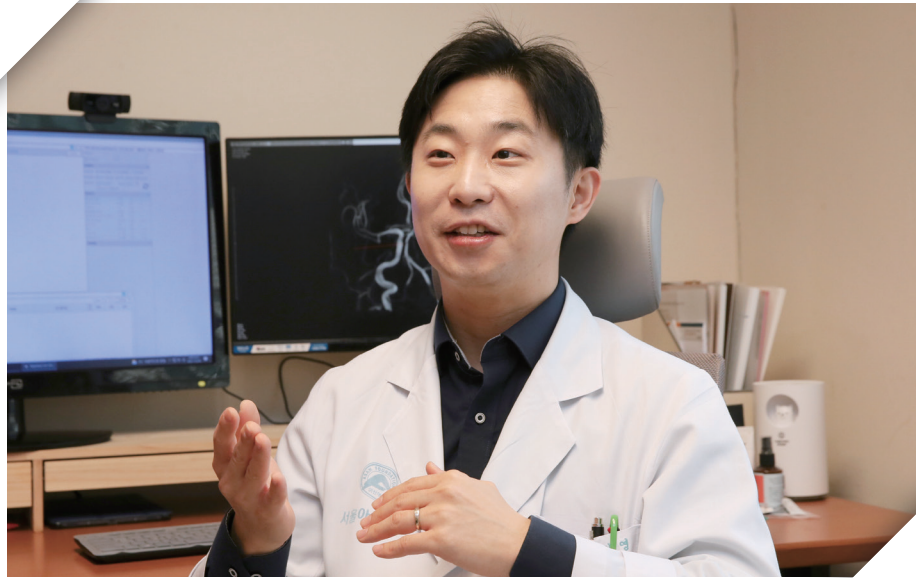
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2018년에 개관한 헬싱키 중앙도서관 오오디(Oodi)는 기획부터 개관까지 20년이 걸린 대표적인 미래형 도서관이다. 책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창작 활동을 돕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오오디에는 책을 제 서가로 이동시키는 로봇이 있고, 책 추천 로봇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여수 시립 이순신도서관에 책을 서가에서 찾아주는 로봇이 있다.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의 AI는 아니지만 도서관의 업무 영역에도 AI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병원 초창기 시절에만 해도 도서관에 직접 가야만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한의원 약재함같이 생긴 상자 안에 가지런히 정리된 목록 카드를 뒤적이고, Index Medicus라는 두꺼운 색인지에서 깨알같이 인쇄된 논문 정보를 찾은 후 서가에 가서 책을 뽑아 복사까지 해야 했다. 까마득한 옛날 일 같지만 지금처럼 데스크톱이나 모바일 기기에서 바로 원문을 보게 된 지는 따지고 보면 불과 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책을 찾아 주는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 논문도 구글이 다 찾아주는데 도서관이 있어야 하나? 도서관에 안 가도 거의 모든 자료를 전자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책이 필요한가? 공간이 필요한가? 자연스레 드는 생각이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정보 환경과 오픈 액세스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연구 결과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용자의 정보 요구는 더욱 전문화, 세분화, 개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의학정보 제공자로서의 의학도서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리라 본다.

아산의학도서관은 최적의 의학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션과 '연구자가 신뢰하는 도서관', '아산인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 '업무의 표준이 되는 도서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대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는 최적의 연구지원이다. 학술정보원 구독과 이용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임상진료지침이나 체계적 문헌고찰 작성을 위한 근거중심의 논문 검색을 비롯하여 논문 등재부터 출판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실적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병원과 의대를 포함하여 주요 병원과 의대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 실적 지표들을 정확하게 산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아산의학상 등 아산재단 학술사업과 재단 산하병원의 자료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직원들을 위한 품격 있는 GWP 실현의 장으로서 울산의대교수 추천도서 100선을 중심으로 한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 우수 의학도서관들의 미션을 정리한 자료를 보던 중에 눈길을 끄는 곳이 있었다. 바로 '학습과 학문적인 성찰의 안식처(haven)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미션을 가진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 버나드 베커 의학도서관(미국 세인트 루이스 소재)이었다. 지금 풍납동 단지 내의 다양한 세대와 직군의 이용자들이 각자의 필요와 바람으로 아산의학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서가 사이에서 로봇을 만나기도 하고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경계 없이 넘나드는 아산 메타메드브러리(meta-med-brary)가 생기는 날에도 아산의학도서관이 창조와 소통, 융합의 플랫폼이 되어 모든 임직원들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년 건강의 매듭을 풀며



노년내과 장일영 조교수

내과 전공의 시절, 치료를 잘 마치고도 기력이 돌아오지 않는 노인 환자들을 보며 아꼈다. 환자들이 진짜 아프고 불편하게 여기는 건 따로 있었다. 특정 질병으로 꼽기 어려운 문제였다. “세분화된 의료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보였습니다. 노인 환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외국의 사례를 찾아볼수록 한국도 곧 시대적 요구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당시로선 낮은 선택이었지만 기대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배움과 실행 노인 치료가 처음부터 잘 맞았던 건 아니다. 병력과 증상을 보고 진짜 아픈 것과 심리적인 것을 구분하는 데 애를 먹었다. ‘어디까지 검사하고 어디까지 지켜봐야 하지? 해결은 가능한 걸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료 스타일과 기준이 잡힐 때까지 독하게 공부했다. 부족한 외래 경험은 보건소 공중보건의로사로 근무하면서 채워갔다. 노인 환자의 현실을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의료 혜택이 진짜 필요한 대상은 진료실 밖의 거동이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죠. 가정과 사회, 병원을 연계해 치료의 연속성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장 조교수는 평창 지역 1,60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를 시작했다. 지역 사회 연구는 실패할 거라는 충고가 많았지만 실행에 옮겼다. “예상보다 연구는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체계적인 노

인 건강 관리의 근거를 마련해야 했어요. 우리 병원에서 배운 것과 미국 연수 네트워크를 활용했죠.” 영양 관리와 운동, 약제 조절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 노인 건강 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화한 작업은 사망률과 장애 지연 효과를 입증하면서 각종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 “혼자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별다른 치료 없이 발일을 하면서 몸을 방치한 케이스였죠. 여러 달 관리를 하며 함께 노력한 끝에 혼자 걸어서 외래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올해는 꼭 죽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살고 싶어요. 사는 재미를 알 것 같아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다! 싶었죠. 연구를 통해 노인 분들께 짧게는 2개월, 길게는 5년 이상의 일상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꿈 장 조교수는 어린 시절 경찰을 꿈꿨다. 세상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하지만 시력이 나빠 입시 직전에 꿈을 포기했다. 카이스트에 입학한 뒤 사람과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직업을 찾고 싶어 의대로 재입학 했다. 아르바이트 삼아 시작한 과외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르치는 일에 뜻밖의 흥미를 느꼈다. “상대방을 쉽고 편안하게 이해시키는 법이나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환자 치료 노하우를 배운 셈이죠.”

그가 만나는 노인 환자의 대부분은 오랜 생활 습관과 바뀐 몸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고, 노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르신들의 경험에 대처하기보다는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단명과 치료 방법은 어느 의사나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설명 방식이 달라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치료에 대한 신뢰와 실행 동기가 다르니까요.” 환자들이 여러 병원에서 받은 수십 가지 처방을 찬찬히 살피며 제3자의 관점에서 꼬인 매듭을 풀어갔다. 복용 약과 생활 습관만 섬세하게 조정해도 환자가 느끼는 변화는 컸다. “환자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어려운 고비마다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관련 정책에도 참여하며 병원과 사회를 연결할 방법을 찾죠.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오랜 꿈이 노인질환 전문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변화 10년 전만 해도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근감소증을 방치하면 골절과 낙상, 노인 우울증, 각종 장애와 사망까지 이른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녀 손에 이끌려 오던 환자들은 이제 스스로 장 조교수를 찾아온다. “근감소증이나 노쇠를 말씀하시며 오는 어르신들을 보고 격세지감을 느껴요.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대비할 것이 많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중환자실 치료를 완벽히 해도 질병의 경과를 개인사와 맞닿아 있다. 환자 스스로 집에서 건강을 관리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이유다. 또 시니어환자위원회 활동을 통해 환자 및 내원객의 고령화에 대비한 업무 흐름과 직원 교육, 소통 방식을 바꿔나가고 있다. 노인 친화적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고령화 사회의 기본 체력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러한 분야가 공감을 얻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힘도 나요. 제가 배운 것을 사회와 공유하고 정책화하며 더 많은 후학을 키우고 싶습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보는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 위해 좋은 식단 유지해야



소아청소년과 이소연 교수



“요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몸에 이로운 균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보통 유산균 혹은 정장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섭취했을 때 장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균주를 통칭하는 명칭이다. 장내 미생물총 조성은 여러 만성 질환의 증상을 조절하거나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급성장하는 산업이 되었는데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독자 분들도 프로바이오틱스를 구입하여 드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프로바이오틱스 사용이 대중화 되었지만 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들이 과연 모든 이의 건강에 효과적이냐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왜 약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프로바이오틱스가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질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항생제 복용과 연관된 설사, 염증성 장질환, 과민성 대장질환, 헬리코박터균 감염, 신생아에서 후기 패혈증과 괴사성 장염, 호흡기 감염, 아토피피부염, 비만, 제2형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 등이다. 이 질환에 작용하는 기전으로는 면역조절작용, 병원성균 억제, 장 점막 방어 역할 증대, 장내 미생물총 조성 회복 등이 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자료가 뒷받침된 질환들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다양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크게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프로바이오틱스 자체의 차이 때문이다. 같은 질환이라도 사용된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주가 다르거나(비피도박테리움 또는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단일균주 또는 여러 가지 균주 복합체 사용 등), 균의 상태(생균 또는 사균), 복용 기간 등이 달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먹는 사람의 상태 때문이다. 식이, 나이, 유전적 성향, 기존의 장내 미생물총 조성 등의 차이가 여기에 해당된다. 동물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므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가 명확하게 보였던 경우라도 사람은 실

험실 환경처럼 제한적인 환경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므로 같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였다도 이른둥이에서 모유 수유를 한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이 후기 패혈증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조금 더 빠르게 정맥 영양을 중단하고 경구 영양 섭취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분유 수유를 한 경우에는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라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기존의 장내 미생물총 조성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정착하기에 좋은 경우 과민성 장 질환이나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정착하기 나쁜 장내 미생물총이 기존에 조성돼 있는 경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기존의 거주자들이 새로운 이웃을 반갑게 맞이하여 더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느냐 또는 배척하여 쫓아내어 기존의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느냐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작용하기 가장 좋은 장내 미생물총 조성을 알 수 있거나 도움이 되는 식단을 알 수 있다면 사전 검사를 통해서 개개인에게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처방이 가능하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기존의 미생물총들로 조성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식품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렇듯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유럽식품안전청이나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아직까지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도 치료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프로바이오틱스 이외에 우리 몸에 좋은 장내 미생물총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장내 미생물총 조성은 출생 직후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출산 방법(자연분만·제왕절개), 수유 방법(모유·분유수유), 항생제 사용 등이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되며 이후 나이, 약물, 거주하는 환경, 식이, 생활 패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중 나이나 거주하는 환경 등은 우리가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음식이나 생활 패턴은 가능하다(물론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장내 미생물총 조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다. 한 가지 실험을 예로 들면 실험군에게 곡류, 견과류, 채소, 과일 등이 주로 포함된 식단을 5일간 제공하였을 경우 식물성 식품을 주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장내 미생물총 조성을 보였다가 식단을 중단하면 다시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장내 미생물총 조성으로 회복되었다. 이는 실험군에게 육류, 치즈 등 동물성 식품 위주로 먹었을 경우에도 동물성 식품과 관련된 장내 미생물총 조성을 보였다가 중단하면 이런 효과가 사라졌다. 따라서 우리 몸에 이로운 장내 미생물총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는 건강에 좋은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만병통치약처럼 복용하기보다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복용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개인별 맞춤 프로바이오틱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 인정 범위를 숙지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보조제 정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운동임을 떠올리며 다가올 새해의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2021 나의 연말정산

기쁜 일도, 힘든 일도 많았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지난 1년의 기억을 찬찬히 되돌아 보며 2021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정리해본다. 올해 힘들었던 일은? 올해의 인연은? 올해 들었던 최고의 칭찬은? '2021년 나의 연말정산'을 도와줄 **질문 10가지**를 준비했다. 직원들이 각자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살펴보자. <편집실>

- ▲올해의 맛집 ▲올해의 소비 ▲올해 만든 나만의 루틴 ▲올해의 TV 프로그램
- ▲올해의 재테크 ▲올해 힘들었던 일 ▲올해의 인연 ▲올해의 칭찬 ▲올해의 후회 ▲올해의 장소

올해의 장소 제주도 우도! 몇 년 만인지 너무나 오랜만에 찾은 우도에는 어느새 많은 음식점과 카페, 펜션들이 생겨나 있었어요. 여행자들이 떠나간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너무나 여유롭고 한가롭게 여러 곳을 살피고 우도의 바다를 거닐었습니다.

올해의 재테크 올해 초 '주식이란 뭘까?' 하고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면서 덤벼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π.π 모두 파란색으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나와 주식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올해의 후회 한 해를 시작하며 뱃살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빼리라~ 다짐에 다짐을 하건만 실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올해도 역시 뱃살은 나도 모르게 더욱 두터워지고만 있습니다. 뱃살이 저를 너무 사랑하나 봅니다ㅎㅎ. 그만 좀 날 내버려 두지 않겠니~?

/외래간호팀 김수미 주임

올해의 장소 제 올해의 장소는 우리 집 옥상입니다! '집-병원' 무한 루트 속 숨통을 트게 해준 노을 맛집! 앞에 있는 레미콘 공장이 없어지면 더욱 맛있을 것 같아요!
올해 만든 나만의 루틴 하루 2L 물 마시기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덜 고프고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던데... 아직 효과는 잘 모르겠네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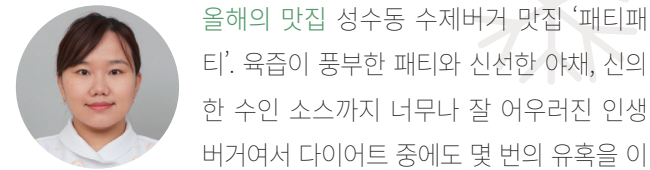
올해의 칭찬 39년 만에 처음 운동으로 받은 칭찬! "이야~ 배드민턴 잘 치네!" 사실 고작 랠리 4번하고 받은 칭찬이지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린이병원간호팀 김윤형 과장

올해의 장소 올여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갔던 강원도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 푸른 하늘 아래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적당한 해변까지!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다시 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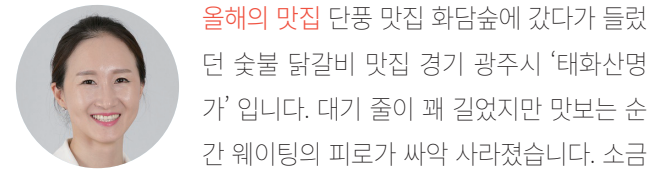
올해 만든 나만의 루틴 사무실이 1층에서 12층으로 옮기게 되면서 정한 루틴! 하루 2번 출근할 때와 점심 식사 후 사무실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오르면 숨이 차지만 자부심도 함께 차올라서 뿌듯합니다.

올해의 칭찬 미루고 미루던 체중 줄이기에 성공한 나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두 달간 운동과 식단 조절까지 병행하니 5.5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임상시험센터 선택진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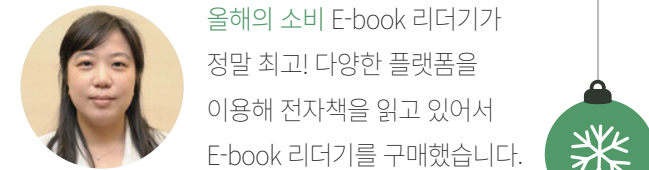
올해의 맛집 성수동 수제버거 맛집 '패티패티'. 육즙이 풍부한 패티와 신선한 야채, 신의 한 수인 소스까지 너무나 잘 어우러진 인생 버거여서 다이어트 중에도 몇 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고구마프라이즈, 블랙트러플머쉬룸 버거, 시그니처 버거와 상큼한 리코타치즈 샐러드까지. 글을 적는 지금도 침이 꿀꺽 넘어가 오늘 저녁에도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네요.
올해의 소비 아이들과 함께 갔던 글램핑. 캠핑 장비를 구매하거나 빌리고 설치할 자신이 없어서 글램핑을 택했어요. 아쉽게도 갈 때마다 비가 왔지만 아이들과 함께 우비를 입고 잔디밭을 거닐고 빗소리를 들으며 불멍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올해의 칭찬 "대단하다, 잘했다." 아이를 낳은 뒤 육아하고 출근하느라 스스로를 챙기지 못하고 10년이 지나니 몸, 특히 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20kg 정도 감량했고 조금 더 뺀 뒤 유지를 잘 하기로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독하다는 얘기도 듣지만 오랜만에 만난 보호자가 어디 아파서 살이 빠졌냐고 물어보셔서 다이어트 했다고 말씀 드리니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더 뿌듯했어요.
/암병원간호2팀 권두란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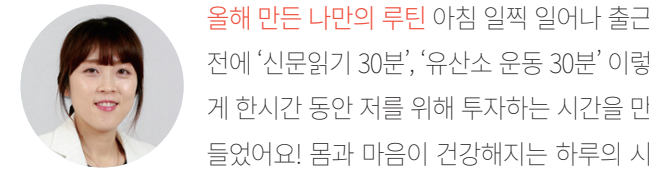
올해의 맛집 단풍 맛집 화담숲에 갔다가 들렀던 숯불 닭갈비 맛집 경기 광주시 '태화산명가' 입니다. 대기 줄이 꽤 길었지만 맛보는 순간 웨이팅의 피로가 싸악 사라졌습니다. 소금 구이, 양념구이 모두 맛이 일품이었고 막국수까지 완벽한 식사였습니다.
올해의 장소 강원 속초시 '영금정'. 딸아이가 어려 늘 밤에는 숙소에 있었는데, 드디어 올해 5월! 아이와 함께 야경을 봤습니다. 속초 영금정에서 야경 보며 별도 찾고 달도 찾고 등대도 찾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기억이 떠오르네요.

올해의 TV 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가 좋았습니다. 아이의 세계에 엄마가 얼마나 큰 존재일까 짐작해보면서도, 현실에서는 매일같이 혼내고 씨름하고 협박하고 경고하고, 지나고 나면 미안하고 다짐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길 반복하는 엄마와 아이의 기막힌 일상이네요~. 부족한 엄마를 조금씩 채워주고 일깨워주고 배움을 주는 고마운 프로그램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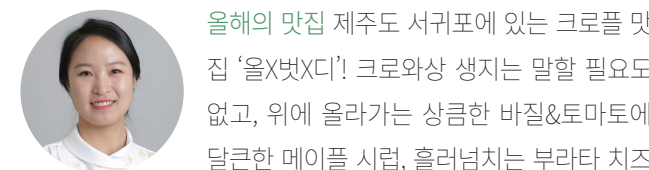
/외래간호팀 박선영 대리



올해의 소비 E-book 리더기가 정말 최고!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전자책을 읽고 있어서 E-book 리더기를 구매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고, 아산의학도서관 소장 전자책까지 간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올해의 TV 프로그램 '슈퍼밴드 2'. 4개의 기타로 연주하는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기운을 북돋아 주는 모닝송^^.
올해의 인연 강아지 바우. 작년 말에 가족이 되고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장난꾸러기 강아지 덕에 새벽 5시 강제 기상, 하루 두 번 강제 산책. 우리 가족의 삶은 달라졌지만 새로운 행복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 /건강의학과 이지영 조교수



올해 만든 나만의 루틴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전에 '신문읽기 30분', '유산소 운동 30분' 이렇게 한시간 동안 저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하루의 시작, 아침이 아주 알차답니다!
올해의 칭찬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기'라는 나와 의 약속을 잘 지켜준 나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시작은 힘들었지만 지금은 즐겁게 분야별 책 쏙쏙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의 재테크 '10만 전자'를 노리며 국내 첫 주식 삼성XX에 도전했지만... 낙오 중이네요πππ. 삼성XX 힘내!
/응급간호팀 김은경 대리



올해의 맛집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크로플 맛집 '올X벗X디!' 크로와상 생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위에 올라가는 상큼한 바질&토마토에 달큰한 메이플 시럽, 흘러넘치는 부라타 치즈까지! 한 입 먹으면 여기가 곧 천국이랍니다!
올해의 장소 산 좋고 물 맑은 하동♥ 그야말로 '살여리 살여리'라 다. 청산에 살여리랏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안 알려지고 나만 알고 싶은 곳!
올해의 소비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페라XX 시계! 올해 힘들었던 나에게 앞으로의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는 의미로 결재했습니다! 여전히 할부는 남았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시계를 보면 뿌듯해집니다. /암병원간호1팀 최지유 주임



올해 만든 나만의 루틴 하루 5분,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시간 내기. 잠깐동안 서너 페이지 책을 읽거나 마음에 남는 문장을 메모하는 등 시간을 보냈고 틈틈이 넘기던 책이 벌써 여러 권 쌓여 올해의 재산으로 남았습니다.

올해의 재테크 개원기념 퀴즈대회 AMC 퀴즈왕! 늘 마시는 커피이지만 퀴즈 만점 받아서 받은 쿠폰으로 공짜 커피를 마시니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

올해의 TV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 세상 곳곳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모든 사람이 걸어 다니는 한 권의 책이라는 말이 있듯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 살아온 인생을 살짝 엿보는 시간이 흥미롭습니다. / 의학도서관 박서은 주임



올해의 장소 대전에서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대전항에서 쭈꾸미 낚시도 하고, 짬라인도 타고, 맛있는 조개구이도 먹었지요. 즐거움과 짜릿함이 공존하는 대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힘들었던 일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업체를 부르지 않고 남자친구와 둘이서 맥시멀리스트인 제 많은 짐을 옮겼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네요... ㅜ.ㅜ

올해 만든 나만의 루틴 아침을 절대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게 빵이나 군밤, 두유 등 부담스럽지 않지만 영양가 있는 아침을 먹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활기찬 하루 시작을 위해 아침 꼭 드세요! / 수술간호팀 최미희 사원



올해의 맛집 남산의 '엔그릴' 이라는 레스토랑! (광고 아님^^) 식사하는 동안 자동으로 회전하며 서울의 멋진 뷰를 근사한 분위기와 더불어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기념일을 맞고 싶다면 한 번쯤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올해의 장소 제주도의 모든 곳이 보물과 같지만 그중에서도 소가 누워 있는 모습의 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전기 자전거거나 예쁜 전동차를 타고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유채꽃, 돌담, 보리밭에서 추억을 쌓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올해의 인연 내년 4월에 태어날 나의 조카! 성별을 몰랐을 땐 '딸일까? 아들일까?' 궁금해했고 아들이란 걸 알고는 벌써부터 '어떤 옷을 사줄까? 신발을 지금 선물 해도 될까?' 고민하는 조카바보 고모가 되었답니다. / 핵의학팀 정예진 사원



올해의 장소 폭설이 내렸다가 모처럼 맑게 갠 날에 오른 한라산. 겨울왕국의 엘사가 Let It Go 부르면서 만들어 놓은 풍경 속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올해의 인연 반려견 '베니'와의 새로운 인연. 15년간 함께 했던 반려견 '싯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한 달 후 단골 애견 미용실 원장님이 갑자기 우리 강아지를 잘 있냐는 안부 인사와 함께 강아지 임시보호를 권하셨습니다. 한 달간 함께 지내다 입양까지 결심하게 된 노퍽테리어(Norfolk Terrier) 7살 베니!

올해의 TV 프로그램 '슈퍼밴드 2'가 가장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매년 봄과 가을에 한 번씩은 즐기던 뮤직 페스티벌이 모두 취소된 지 어언 2년째. 그 아쉬움을 TV로나마 힐링하게 해주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문자투표를 부탁하며 응원하던 팀이 우승해서 더더욱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 임상시험센터 서은혜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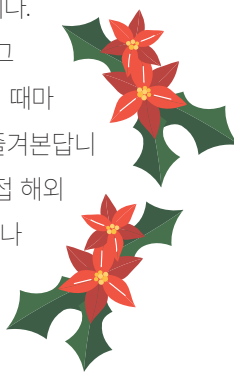


올해의 맛집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이진자 닭발'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원래 매운 걸 잘 먹지 못해서 닭발을 즐겨 먹지 않는 편인데, 이 집 닭발은 주기적으로 생각날 만큼 매콤한 맛과 불향의 조화가 아주 중독적입니다^^.

올해의 장소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수선사'를 아시나요? 푸르른 산과 조화를 이루는 목조 건축물들, 아름다운 연꽃이 떠 있는 연못을 보니 마치 해외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올해의 TV 프로그램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 한지도 벌써 3년째로 접어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EBS1에서 방영하는 '세계테마기행'을 즐겨보답니다. 이색적인 풍경을 담은 생동감 넘치는 연출, 직접 해외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내레이션까지 어느 하나 아쉬운 점을 찾을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 재단 복지사업팀 남궁윤 주임



올해 만든 나만의 루틴 '등산'입니다. 2021년 신년 목표로 등록한 PT를 시작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갖게 되어 새로운 운동을 탐색하던 중 부모님과 다녀온 대둔산 산행은 저에게 크나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의 장소 인천의 '대청도'입니다. 평소 걷는 걸 좋아하는 저와 병동 동기는 국내 트레킹 명소 중 언택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오랫동안 서칭한 끝에 둘 다 마음이 동하는 장소를 발견했는데 그 곳이 바로 대청도였습니다. 대청도의 서풍받이의 실물은 훨씬 더 절경이었고 엄청난 풍경에 압도 당했습니다.

올해의 맛집 방이동 '우직' 이자카야는 제 기준 올해의 맛집입니다. '우직'의 오마카세는 5~6만 원대로 가성비비가 높고 제일 좋은 건 인당 3만 원에 여러 종류의

하이볼이 무한리필 된다는 점입니다. 맛과 코스 구성이 좋아 간단한 술과 맛있는 음식을 곁들이고 싶은 날 병원 근처 맛집 '우직'을 추천합니다!

/ 심장병원간호팀 우주희 주임



올해의 장소 결혼 20주년 기념일에 남편과 함께한 1일 유럽여행 '가평 삐뜨프랑스 & 에델바이스 스위트마파크!' 유럽행 비행기는 못 탔지만 남편이 준비해준 이벤트에 감동받은 하루였습니다.

올해의 소비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서 거금 들여 미*린 타이어로 교체 후 고급 레스토랑 커플 식사권 이벤트에 당첨되었습니다! 올바른 소비에 대한 대가인 듯해서 로또 당첨이 부럽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올해의 칭찬 코로나19로 외식을 자주 못하다 보니 집밥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집은 육개장 맛집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주부 70년차 내공이 있으신 친정엄마도 엄지 척 해주신 맛!

홈메이드 육개장~ 얼마나 맛있게요!! / 핵의학팀 서화숙 과장



올해 만든 나만의 루틴 건강을 챙기는 2021년이었어요.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눈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항상

출근 30분 퇴근 30분 걸어 다녔답니다! 걷고 나서 올해 건강검진에서는 당뇨 전 단계가 안 나왔어요. 건강관리 성공^^.

올해의 TV 프로그램 다양한 먹방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 먹방은 '맛있는 녀석들'이 최고예요! 맛뎀이 여러분들~ 맛있는 녀석들을 응원합니다^^.

올해의 소비 올해의 소비는 양배추 칼! 올해 요리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입했는데, 돈가스나 토스트에 필요한 양배추를 사삭삭~ 얇고 맛있게 잘라줍니다. 요리의 초보를 고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핫템입니다. ^^ / 암병원간호1팀 문다혜 주임



올해의 맛집 제주 여행 중 가게 된 음식점! 협재해수욕장 근처 금능낙원에서 '몸국'이란 걸 먹었는데 시원한 진국 들이키니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시더군요.

올해의 재테크 사랑하는 방탄 오빠들만 생각하며 욕 먹으며 산 하이브 2주~ 더 대박나길!!

올해 만든 나만의 루틴 주말 제외하고 매일 영어 일기 쓰는 것을 올해의 루틴으로 정했습니다! 문법을 틀릴 때도 많고 아무 말 대잔치이지만 매일 쓰다 보니 더 재미있어지네요! 내년에도 이어가려 합니다.

/ 심장병원간호팀 박지나 과장



올해의 소비 출근길에 함께하는 귀여운 텀블러! 지구를 아끼는 마음을 더해 일석이조. ^^

올해의 재테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때 처음 주식에 입문했는데 기적적으로

수익 달성! 좋은 주식은 팔지 않는 게 스킬이라던데 계속 공부해서 꾸준히 가보자!

올해 만든 나만의 루틴 10년차 직장맘. 퇴근 후~육아 전 짧고 굵은 나만의 시간 즐기! 직장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는 직장맘은 하루 24시간, 365일 당직 중 ㅠ.ㅠ 근무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전하지 않기 위해 가지는 나를 위한 시간. 티타임을 하고 노래도 듣고 책도 읽고 나를 돌봐주는 소중한 시간♥.

/ 건진운영팀 이유리 대리

병원에서의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어린이병원간호팀 김연수 주임



나는 소아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5년차 간호사다. 최근 처음으로 고객칭찬 우수상을 받았다. 직원식당을 오가며 봤던 '고객칭찬 우수직원' 포스터 속 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정말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민망하기도 했다. 남들보다 특별한 건 없었는데 말이다.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소아 병동에서 일하며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고 마음이 아팠다. 계속되는 치료에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환자,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야 하는 환자, 집으로 돌아가도 계속되는 병간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 보이는 보호자의 모습 등을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든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환자 안전을 위해 보호자는 1인만 상주 가능하며 서로 음식을 나눠 먹거나 다른 침상을 오가는 것도 안 된다. 이처럼 더 많은 제약이 생기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외롭고 고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 커튼 뒤 좁은 공간에서 보호자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그래서 나는 환자를 간호하러 갈 때 보호자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에서 긴 시간이 허용되진 않지만, 보호자에게는 이 짧은 순간이 통화나 메신저가 아닌 누군가와 마주보고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보호자가 "선생님만 오시면 이렇게 한참을 붙잡게 되네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가끔은 내가 괜히 귀찮게 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했는데 보호자의 말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되었다.

"아이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해 걱정이었는데 섬세한 손길에 아이가 깨지 않고 잘 잤습니다." "밤에 항생제를 놓을 때 환자와 보호자가 깨지 않게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 카드에 적혀 있던 내용이다. 소아 병동의 특성상 환자를 간호할 때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환자는 한껏 긴장하고 울며 지친 하루를 보낸다. 보호자 또한 마찬가지로 지친 하루를 보내고 드디어 찾아온 평온한 밤, 이 밤에도 우리는 간호를 할 수 없기에 최대한 환자와 보호자가 깨지 않도록 어두운 병실 안에서 작은 라이트 불빛에 의존한 채 조심하 라운딩을 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환자를 깨워버릴 때는 울며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아이에게도, 달래고 재우느라 고생하는 보호자에게도, 소음에 갇혀 환자에게도 너무나 미안한 밤이 되어버린다. 간혹 원망 섞인 한숨 소리를 들을 때도 있다. 그럴 때면 '환자를 깨우게 되어 속상한 내 마음을 알까?' 하는 속 좁은 생각이 불쑥 들기도 한다. 하지만 칭찬 카드에 적혀 있던 글들을 통해 그동안 내가 했던 노력과 배려를 환자와 보호자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했고 더 노력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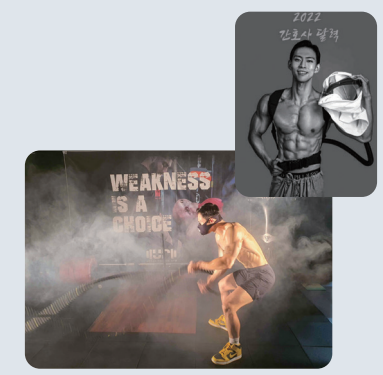
고객칭찬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향했던 관심과 배려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 병동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언제나 바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건 나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메꿔주는 소중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항상 함께하고 싶은 145병동 선생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는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적어 내려간 희망과 극복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나의 취미생활

'몸짱' 간호사 프로젝트

응급간호팀 김윤섭 사원



※ 병원보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나의 취미생활' 코너를 운영합니다. 취미활동을 소개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한 계기는 재수 생활을 하면서 찌던 살을 빼고자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운동을 해왔는데 최근엔 일주일에 3~4회 정도 부위를 나누어 분할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병행하면서 1시간 30분 정도 운동을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장점은 건강한 몸을 가꿀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 수 있고, 바디프로필을 준비할 경우 타이트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겨 언제든지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응급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최근 '간호사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작년에 단체로 바디프로필 촬영을 했는데 소방관 달력이나 경찰관 달력처럼 우리도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간호사 달력을 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올해 초반에는 근비대를 목적으로 원없이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감량에 들어갔습니다. 각자 목표 체중을 정해서 촬영일에 맞춰 최대의 근육량과 최소의 지방량을 만들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어요. 식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정해 조절했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동기부여를 해주었고 성공적으로 달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앞으로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매년 간호사 달력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은 전국적으로 보디빌딩 대회를 개최해 달력 제작에 참여할 멤버를 선발할 정도로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달력 판매수익 전액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에요. 아산넷 '샵니다 팝니다' 게시판에 홍보글이 있으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영어논문 레벨업

연구 종류에 적합한 제목 고르기



임상의학연구소 임준서 특수전문학자

연구논문의 제목은 질문형(interrogative), 서술형(descriptive), 그리고 선언형(declarative)으로 나뉜다. 코로나19 백신이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연구했다고 가정했을 때 각 형태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질문형: *Is COVID-19 vaccination associated with sudden cardiac death?*
 서술형: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COVID-19 vaccination and sudden cardiac death.*
 선언형: *COVID-19 vaccination is not associated with sudden cardiac death.*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상연구의 대부분은 서술형을 쓰는 것이 적합하며 기초연구는 선언형이 자연스럽다.

질문형은 쉽게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 디자인이나 조작변인, 종속변인 등을 드러내기 힘들기 때문에 지양하는 추세이다. 특히 high-impact 저널에서는 전무하다. 대신 commentary나 letter to editor, review 등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외과 계열 저널들에서는 간혹 연구 논문에 대해서도 사용되니 저널 스타일을 고려해야 한다.

선언형은 임상연구에서 보통 쓰이지 않는다. 이는 제목이 연구의 결과를 너무 단정적으로 한정해 버리기 때문이다. 기초연구와 달리 임상연구는 보통 인과관계가 아닌 연관성을 드러내는 데 그치고 항상 교란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randomized controlled trial 같은 경우에도 단정적인 제목을 써버리면 의도치 않은 사회적 여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JAMA」와 같은 high-impact 저널에서는 애초에 논문 투고 가이드라인에 제목 작성 시 선언형은 아예 쓰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임상의학연구소 영어논문교정지원부는 우리 병원의 연구성과가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영어 논문 교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 논문 작성 관련 팁을 '영어논문레벨업' 코너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마이펫 작고 귀여운 열대어 구피 외래간호팀 서영화 과장

우리집 구피를 소개합니다. 구피는 난태생송사리과의 민물고기로 송사리처럼 몸집이 작고 귀엽습니다. 이름은 딸아이가 '소중한 구피'라는 의미로 '소피'라고 지었어요. 작년에 동료 선생님이 구피를 분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려동물을 직접 키워보는 게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데려왔습니다.

구피는 키우기 쉽고 번식력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수초가 있는 수조에 암컷과 수컷을 함께 넣어두면 자연적으로 수가 증가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조를 청소해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없어요. 시간과 노력이 비교적 적게 들기 때문에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겐 좋을 것 같아요.

소피들과 함께 한 이후에 좋아진 점이 정말 많습니다. 딸과 수초 청소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좋고, 딸이 물고기에게 적당한 온도 등을 직접 검색해보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아이가 직접 먹이를 주고 소피 상태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소피들을 가만히 앉아 보고 있으면 잡념이 사라지고 힐링되는 느낌이 듭니다. 집에서 '물멍'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지요.

어릴 적엔 집 앞에 있는 냇가에서 물고기를 흔히 접할 수 있었지만 도시 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잖아요. 소피를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 병원보는 직원들의 반려동물을 소개하는 '마이펫' 코너를 운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서's PICK 연말의 호사

장엄한 고독이 나를 압도했다. 구속받지 않는 자연의 심오한 전형 속에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있는 경험은 실로 놀라웠다. 삶은 각자의 속도로 흘렀고 바위와 흙, 식물은 인간의 손에서 탄생하지 않은 풍경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고독한 관중이자 일시적인 방문자로 수십억 년 전 태초의 지구에서 시작된 흐름의 일시적인 발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근원의 시간 속으로 中)

내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 세상 밖으로 조금씩 조금씩 밀려나게 되리라고는 물론 상상하지 못했다. ... 내 나이에 현실을 외면해도 괜찮다고, 새로 비밀번호를 만들고 외워야 하는 시대의 요구 앞에서 슬쩍 고개를 돌려도 용서가 된다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할까 봐 두렵다. 결국 모든 소통을 단념하게 될까 봐 무섭다. (내가 늘어버린 여름 中)

한 해의 끝자락. 어떤 의무도, 책임도 없는 리트릿(retreat)이 호사처럼 주어진다던 가방 안에 넣어갈 몇 권의 책. 이 책들과 함께라면 한 해를 좀 더 담담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근원의 시간 속으로 윌리엄 글래스러 | 더숲 | 2021
세 명의 지질학자들이 그린란드 피오르 해안가에서 보낸 15년 간의 지질 탐험기. 이질적인 야생의 놀라운 아름다움은 사진으로 담을 수 없었다. 암석 조각이 20억 년 만에 공기 중으로 올려보내는 밤새, 피오르 능선 절벽 끝에서 조우한 송골매의 짙은 색 눈에 영혼이 방망이질 친다. 그린란드의 광활한 야생 속에서 과학은 시가 된다.

다시, 피아노 앨런 러스브리저 | 포노 | 2016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의 전 편집국장이 쇼팽의 발라드 1번을 1년 반 동안 매일 20분씩 연습해 독주회를 열고 그 과정을 일기로 남겼다. 얼마나 많은 공사다망한 사건 사고를 헤치며 완주까지 갔겠는가? 제대로 재미있다. (이 모든 걸 번역이 받쳐준다.) 쇼팽의 발라드 1번 연주회 초청장을 받아보고 싶다. 초청장을 보낼 용기는 없지만.

-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 이여령 | 열림원 | 2021
- 내가 늘어버린 여름** 이지벨 드 쿠르티브롱 | 김영사 | 2021
-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매트 헤이그 | 인플루엔셜 | 2021

※ 자료 제공 : 의학도서관 박소영 유닛 매니저

※ '사서's PICK' 코너는 특정 테마를 주제로 의학도서관 사서들이 추천하는 책을 공유합니다. 전문가의 시의성 있는 책 소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소개된 책은 의학도서관 장서 또는 전자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병원보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외과 김서현 연구원
'헬스에디터 - 건강검진 주요 지표 이해하기'가 좋았습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포인트를 콕콕 잘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의 건강 지표를 쉽게 잘 이해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질문에도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환자간호팀이현진 사원
'나의 취미생활 - 태블릿으로 이모티콘 만들기'를 보고 이런 취미생활도 있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캐릭터들을 보니 직원들과의 소통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카카오톡의 승인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랍니다!

임상시험센터 지선희 연구코디네이터
'이야기가 있는 산책'이 인상 깊었습니다. 글쓰기의 시작부터 과정, 자신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순간들까지 교수님의 글을 통해 저도 경험하였고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있어 보이는 취미를 찾겠다는 핑계로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한 지 오래인데, 제가 좋아하는 것부터 찾아보면서 부지런하게 저의 삶을 탐닉해보겠습니다. 덧붙여 저는 이 짧은 글을 쓰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데 교수님은 정말 타고난 글쓰기 재능을 지니신 것 같습니다!

외과간호팀 박진성 사원
'AMC IN(人)sight - 과학적 호기심에서 환자의 신뢰까지'를 읽고 이준엽 조교수님이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진료 몇 분을 위해 지방에서 멀리 올라오는 환자를 이해하고 그 시간 이 아깝지 않게 최대한의 정성으로 진료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당장의 환자 치료부터 시작하여 그 너머에 있는 희망과 방향을 알려주는 의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의 배움에 대한 열정의 한 걸음이 서울아산병원의 큰 발자국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코너를 읽으며 '나의 담당 환자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간호가 환자를 위한 간호일까?'를 되짚게 되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수술간호팀 유은정 유닛매니저
'병원과 나 - 에너지와 자부심으로 가득한 간호현장에서'에 소개된 우리 병원의 성장 과정을 보며 앞으로 5년, 10년 뒤 우리 병원의 모습이 더 기대되네요! 앞으로도 많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병원간호팀 최수현 대리
'영어논문레벨업 - 작은 부분부터 원어민처럼 영어쓰기'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생활 속에서도 영어를 써야겠다며 읊소, 오마이갓을 외쳤다가 아... 그 이야기가 아니네라며 크게 웃었네요. effect의 동사형이 affect라는 사실부터 compliment, principal 등 단어 소개에 감탄했어요. 절대 헛갈리지 않을 듯합니다!

지나호 정답

제665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헬스에디터 - 건강검진 주요 지표 이해하기'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응급간호팀 김윤섭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당첨자 명단은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